

6.13 지방선거 “이런 복지공약 기대합니다” 제주도민 SNS 개방형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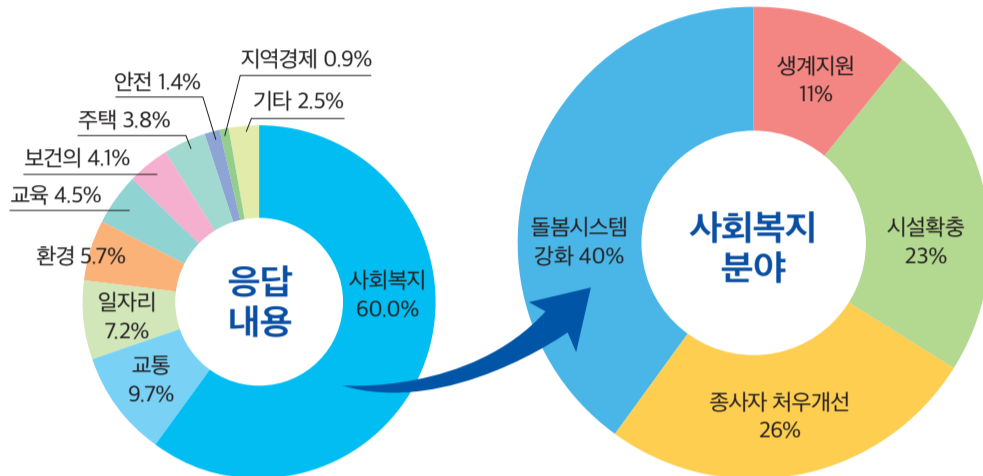
## ‘생애주기별 돌봄 시스템 강화’ 우선 꼽아

복지가 곧 도민의 삶인 시대가 됐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은 복지확대에서 찾아야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도민들이 삶의 영역 전반에서 바라는 ‘복지공약’을 알아보는 SNS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는다.<편집자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제주도민들은 생애주기별 돌봄 시스템 강화를 가장 필요한 복지공약으로 꼽았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달 6일부터 16일 까지 11일 간 SNS를 통해 “이런 복지공약 기대합니다”를 주제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442명이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문항별 무응



도사회복지협의회, 지난달 6~16일 실시...442명 응답 사회복지-교통-일자리-환경 분야 순으로 공약 기대

답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 사회복지 분야 공약에 대한 요구가 265명(6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 43명(9.7%), 일자리 32명(7.2%), 환경 25명(5.7%), 교육 20명(4.5%), 보건의료 18명(4.1%), 주택

17명(3.8%), 안전 6명(1.4%), 지역경제 4명(0.9%), 기타 11명(2.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는 응답자 중 106명(40%)이 돌봄 시스템 강화를 위한 공약을 요구했다. 그 뒤

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69명(26%), 시설확충 61명(23%), 생계지원 29명(11%)에 관한 공약요구가 이어졌다. 돌봄시스템 강화에 대한 의견으로는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

육체계 마련 ▲고독사 예방체계 강화 ▲1인 가구 지원 방안 마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등이 제기되는 등 응답자들의 생애주기별 돌봄에 대한 관심이 고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인 가구 증가, 중장년 세대의 고독사 증가와 더불어 청년실업 악화 등 관계의 결핍으로 인한 무연(無緣)사회 도래에 따른 응답자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종사자 처우개선 분야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전문인력 충원 ▲인건비 현실화 등의 의견이, 시설확충 분야에서는 ▲장애인복지 시설 확충 ▲어린이복지관 신설 ▲기존 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이 제시됐다. <2면으로 계속>



### “행복한 책임기 지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11일 LH행복꿈터삼화지역아동센터에서 'JDC 드림나눔도서관' 제 24호 개관식을 가졌다.

### 지면소개

- 종합 ..... 3면  
환자·보호자 책으로 안정 찾는다
- 특집 ..... 4면  
“우리 손으로 선거공약 제안해요”
- 오피니언 ..... 6면  
시론·칼럼·기고
- 기획 ..... 7면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마련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 도내 사회복지 인권향상을 위해 법률 홈닥터가 달려가겠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 · 사회복지종사자 · 기초수급자 · 다문화가족 ·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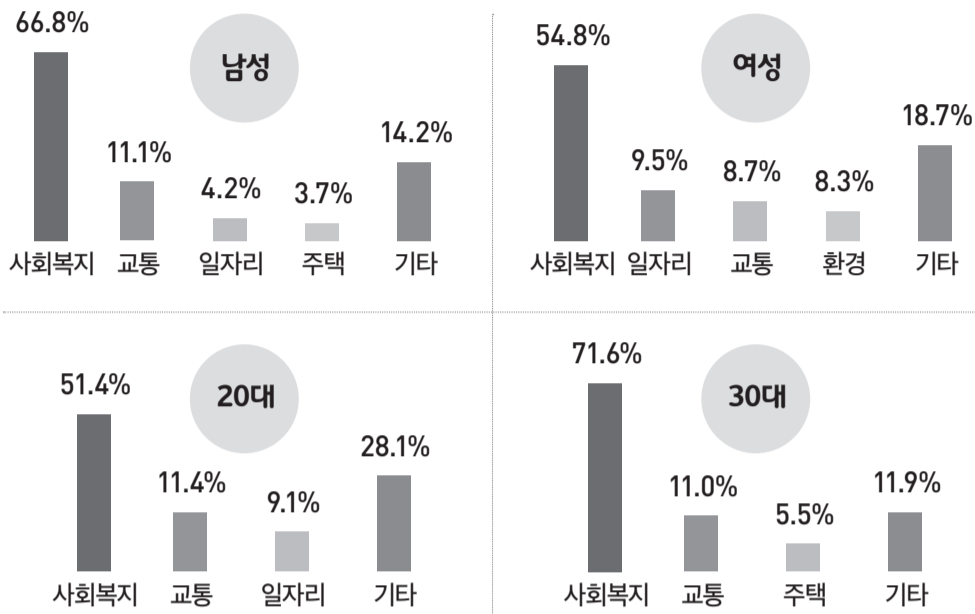
지원 내용은? 1. 인권상담 2. 소송 절차 안내 3. 법률구조기관 등 연계 4. 법문화 출장 교육 등

신청 방법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상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법률홈닥터에서 신청  
▶ 전화상담 :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064)702-3782

☞ 1면에서 계속

## 사회복지분야 공약에 가장 큰 관심

연령대별, 거주지별 2~3순위 관심분야 다소 차이



사회복지분야의 공약에 대한 기대는 남성 응답자의 66.8%, 여성 응답자의 54.8%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뒤를 이어 기대하는 분야는 남성인 경우 교통분야(11.1%), 일자리분야(4.2%), 주택분야(3.7%), 여성인 경우 일자리분야(9.5%), 교통분야(8.7%), 환경분야(8.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서 사회복지분야의 공약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가장 응답자가 많은 20대인 경우 교통분야(11.4%), 일자리분야(9.1%), 30대인 경우 교통분야(11.0%), 주택분야(5.5%)에서의 복지공약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제주시 거주자와 서귀포시 거주자 모두 사회복지분야의 공약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으나 그 뒤를 이

어 기대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주시 거주자인 경우 교통분야(11.0%), 일자리분야(8.0%), 환경분야(4.9%) 서귀포시 거주자인 경우 환경분야(7.8%), 교통분야(6.1%), 교육분야(5.2%)로 응답해 거주지별로 다소 상이한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통분야와 일자리 분야에 대한 관심도 고루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폭이 넓어지고 인식 변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며, 최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사회 논쟁과 청년은 물론 중장년, 노인을 아우르는 일자리문제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응

답자는 총 442명으로 이 중 여성은 252명(57.0%), 남성 190명(43.0%)이었으며, 거주지별로는 제주시가 327명(74.0%), 서귀포시가 115명(26%)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26명(6.0%), 20대 175명(40.1%), 30대 109명(25.0%), 40대 73명(16.7%), 50대 36명(8.3%), 60대 이상 17명(3.9%)으로 SNS(사회관계망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이 많은 20, 30대 참여율이 높았다.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김진훈 교수(대구대학교)는 “SNS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표본통제력이 없어 이번 조사결과가 도민 사회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개방형 질문형태의 단순화된 설문방법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관심 분야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했다.

## 읍·면·동 맞춤형 복지차량 19대 보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동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차량으로 전기차 19대를 보급한다.

복지차량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읍·면·동에 복지서비스 차량을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방문상담, 생활실태 확인, 긴급 지원, 물품 지원 등에 신속한 기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 복지차량 보급을 위해 도에서는 5억41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제주시 12대, 서귀포시 7대를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구축에 맞춰 보급할 계획이다.

또, 복지공무원의 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복지담당 공무원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를 맞춤형 복지팀 설치지역 읍·면·동에 각 3대씩 보급할 계획이다.



## ‘Me, Too’ 세상을 바꾸다

젠더폭력예방을 위한 ‘Me, Too & With You’ 세상을 바꾸다 캠페인이 지난 달 9일 제주시청 일대에서 개최됐다.<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센터장 심화정)가 주최한 이날 캠페인은 제주시, 제주지방경찰청, 동부·서부경찰서,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등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기관(단체) 및 여성단체 등이 연대해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Me, Too’ 운동을 계기로 피해자를 지

지하는 ‘With You’ 공감 분위기를 만들고, 더 나아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없는 안전 제주를 만들어 나가자는 내용으로 이루어 구성됐다.

이와함께 거리행진 캠페인과 ‘세상을 바꾸는 용기, 미투 & 위드유’ 희망메시지 작성, 젠더폭력피해자 지원기관 홍보부스 등이 운영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Me, Too 운동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대한 지역도민의 With You 지지가 활발히 이루어질 때, 제주는 양성 평등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4월기탁 현황

- ▲금강축산유통=축산물179kg ▲유진상사=오뚜기 식품3,126개 ▲(주)쿵스토어 제주이도점=제빵299봉 ▲금산서당골=돈갈비107kg▲나눔베이커리=제빵197봉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304모 ▲던킨도너츠 제주이도점=도너츠88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18,561개 ▲모양=제과65개 ▲미인빵=빵115봉 ▲비엔누아즈=제빵328봉 ▲빠라빠빵=빵25봉 ▲아라파파=떡302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주스200개 ▲행복나눔마트=잡곡74팩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8년 3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 구분      | 후원금수입     | 후원금 사용액 |
|---------|-----------|---------|
| 재가결연후원  | 330,000   | 560,000 |
| 난치병환아후원 | 50,000    | 0       |
| 자원봉사후원  | 375,000   | 375,000 |
| 복지사업후원  | 1,020,000 | 752,450 |
| 푸드마켓후원  | 81        | 0       |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봉식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편집기자 : 김승지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 환자·보호자 책으로 안정 찾는다

## 한마음병원 내 '햇살 좋은 한마음 도서관' 개관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이 책을 보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한마음병원에 문을 열었다.<사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25일 'JDC이음 일자리 사업'의 활동처로서 한마음병원(원장 김철민) 내에 '햇살 좋은 한마음도서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햇살 좋은 한마음 도서관'은 JDC가 추진하는 중장년 일자리사업인 'JDC이음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움직이는 도서관 사서' 사업단의 활동공간을 한마음병원에서 제공하면서 마련됐다.

병원 5층에 마련된 도서관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정서 안정과 지식 함양을 위한 인문, 고양, 아동서적 등 700여 권의 도서와 편안한 독서를 위한 책장과 테이블, 쿠션의자 등이 배치됐다.

김철민 한마음병원 원장은 "도서관 운영이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병원 이용 고객들이 독서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 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DC 관계자는 "주요기관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조성에 협조해 주고 있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JDC는 'JDC 이음 일자리 사업'을 통해 오름매니저, 푸드메신저, 버스킹공연단, 움직이는 도서관 사서, 일자리지원단 등 5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중장년 25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 카페 플로베 SKT 제주사옥 이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원장 정춘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 최초의 청년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플로베가 지난달 5일 이전식을 갖고 SKT 제주사옥(도령로113) 1층으로 이전했다.<사진>

플로베는 청년장애인이 함께 만들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전국적인 모델이 돼 왔다.

플로베의 SKT 제주사옥 이전은 임대료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배

움을 지원하기 위한 SK텔레콤 서부Infra 허근만 본부장의 지원으로 시작 됐으며, 노동조합서부분부 신상호위원장의 실행력으로 만들어진 플로베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플로베 인테리어 디자인은 하우스스타일 김주원 대표, 조경 디자인은 마실누리 안상수 대표의 재능기부로 이루어 졌다.

한편 이전식에서는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도자기 동백뱃지를 선물로 제공했다.



###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 사회복지시설 우수 근무자 해외연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21~25일까지 '2018 사회복지시설 우수 근무자 해외연수'를 진행했다.<사진>

이번 해외연수는 16개 사회복지 직능별 단체에서 추천된 우수근무자 등 21명이 참가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익혀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세인트폴교회, 산티아고요새, 트라이쇼, 바투동굴, 야시장, 독립광장 메르데카 관광 등을 견학했다.

사회복지시설 우수근무자 해외연수는 제주사회복지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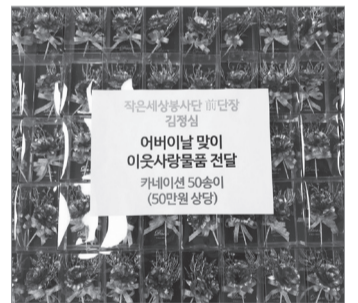
의회 회원시설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수에 참가한 참가자는 "연수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문화도 배우고 다른 시설 종사자들과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즐거웠다"고 말했다.

## 김정심 단장 이웃사랑 물품 기탁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작은세상봉사단 김정심 전 단장이 지난달 26일 어버이날을 맞아 사랑나눔푸드마켓에 50만원 상당 이웃사랑 물품(카네이션 50송이)을 기탁했다.<사진>

김 전 단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어버이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작은 정성을 보낸다"며 "모두에게 따뜻하고 풍성한 어버이날이 되



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카네이션 50송이는 사랑나눔푸드마켓 이용자에 전달될 예정이다.

##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연수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20~22일까지 부산 및 경남 지역 일부에서 '2018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사업 사회복지 자원봉사 연수'를 진행했다.<사진>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참가자간의 교류 및 우의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 저소득가구 안정적 보금자리 제공



주거환경에 취약한 도내 저소득가구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와 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연합회는

지난달 14일 2018 자원봉사연합회 연합봉사활동 제1차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사업은 이도동 홀몸노인 가구에서 진행됐다. 이날 봉사자들은 도배, 장판교체 등을 실시했다.



# “우리 손으로 선거공약 제안해요”

##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 공약 발표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교정)은 지난달 1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정책·공약 제안 발표회’를 가졌다.<사진>

이 날 발표회는 제주지역 초중고 아동대표 7명이 참여해 환경, 건강, 여가, 안전, 교통, 복지, 교육 등 7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아동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차 단속 및 주차장 증설 ▲등교 시간과 통학지역 조사를 바탕으로 한 버스노선과 배차간격 개선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 설치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신호등 설치 및 신호시간 연장 ▲아침식사 시간 확보를 위한 등교시간 연장 ▲길거리와 교정 곳곳에 쓰레기통

설치 ▲급식예산 증액과 아동의견 반영을 통한 급식의 질 개선 ▲학교시간 단축을 통한 아동들의 문화체험과 놀이시간 확대 ▲학교폭력, ‘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예방캠페인 강화 ▲학교 근처 횡단 보도와 신호등, 주차장 증설 및 법규위반 단속 강화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판매 금지 등 아동,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 및 공약을 피력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는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세계 최하위이고, 결핍지수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 이동한 이사장 APA 공적상 수상

이동한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이 지난달 25일 서울시 푸르메재단에서 열린 ‘2018년 제4회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APA)’에서 올해의 공적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사진>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는 아시아 지역에서 필란트로피(philanthropy·박애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숨겨진 리더를 찾아내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제주에서는 최초로 올해 상을 받게 된 이동한 이사장은 중증장애를 극복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987년 11월 사회복지법인 ‘춘강’을 설립한 후 제주도에 장애인 직업재활에 30년 한길을 걸으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근로센터, 직업재활시설, 재활의원

등을 운영해 왔다.

특히, 제주 유일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춘강장애인근로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동의 어려움을 겪자 자비로 기숙사를 신축했고, 1986년에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걷기대회도 개최한 바도 있다. 2012년에는 3억원을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아너소사이어터’가 됐으며, 에티오피아와 미얀마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사업에도 앞장 서 왔다.

# 나눔 전달 ‘밑반찬 배달 자원봉사자’ 모집

##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매주 화요일 1인당 2~5가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저소득 가정 밑반찬 지원사업 배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밑반찬 지원사업은 도내 독거노인과 저소득·복지사각지대 가정을 대상으로 밑반찬 2종을 지원해 결식을

예방하고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해 안부를 확인하면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협의회는 지난 2003년부터 약 15년간 주 1회(매주 화요일) 밑반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배달 봉사는 오후 2시부터

자차를 이용해 1인당 2~5가구, 총 60가구에 지원되고 있다.

특히 봉사자들에게는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을 통해 봉사시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신청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726-5786)로 연락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제일지역아동센터 플루트 앙상블팀 공연 호응



제일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순희) ‘찾아다니며 연주하는 플루트 앙상블팀’이 제주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

‘찾아다니며 연주하는 플루트 앙상블팀’은 맛벌이 등의 이유로 야간에 보호를 받

지 못하는 지역 아동을 위한 야간보호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플루트 앙상블팀은 지역 내 고마로 축제, 산지천 축제 등과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관, 요양원, 영지학교 등을 찾아 특별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노인복지센터 연화원을 찾아 공연봉사를 하고 있으며 매달 두 번째 주에는 20명의 아동들과 한국무용을 배우고 있는 아동들이 트로트와 계절에 맞는 편곡 연주곡 등을 들려주는 등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일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아 플루트를 배울 수 있었다”며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지역사회가 불러준다면 언제든지 가서 연주를 들려드리려고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래놀이봉사단 프로그램 운영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아라마을 만들기 사업 중 1,3세대 통합 프로그램인 old&new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래놀이봉사단을 운영한다.<사진>



전래놀이봉사단은 세대단절에서 오는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고 1,3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아라동 지역의 어린이집에 방문해 전래놀이 체험 및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친근감을 갖게 하고 가족 간, 세대 간

유대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2회 지정 어린이집에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전통팽이, 쌍쌍이, 비석치기, 신발 뺏기 놀이 등 다양한 전래놀이 체험활동과 책 읽어주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엘린 장기근속 직원 해외연수

엘린(원장 한봉금)은 지난 3월21~3월25일 2018년 도 장기근속 직원 해외연수 ‘진정한 휴식 2탄, 가자 홍콩 마카오로!’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직원 격려와 직원복지 차원에서 매년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연수를 참여한 이상진씨는 “60평생 해외를 처음 가봤고 밤에 불빛이 너무 화려해서 놀랐다”며 “이번 여행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내 인생에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보람”이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접수 안내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 사회복지소식 보도자료를 매달 22일까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 - 보도자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소/식/마/당

(무순)

개원 20주년 기념 감사예배



평안전문요양원(원장 고수희)은 지난달 2일 요양원에서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원 20주년 기념 감사예배 후 전직원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평안전문요양원은 1997년 1월 24일 설치허가를 받고 1998년 3월 31일 제주도 최초의 노인전문요양 시설로 개원했으며 차후 노인복지 관련 세미나 개최 등 20주년을 대외적으로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외여행프로그램 실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거주장애인 및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와 강원도지역 일대 방문하는 자립재활여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송죽원 관계자는 “경기도와 강원도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한단계 더 성숙할 수 있었다”며 “이번 여행을 통해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거리학교문화교실 진행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제주시일시청소년센터(이동형(소장 김은영)는 지난달 4일부터 위기 및 거리청소년을 대상으로 버프 주변 부스와 동부청소년경찰학교 강당에서 '거리학교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거리학교문화교실'은 네일아트와 캘리그래피로 구성됐다. 네일아트는 10월 24일까지, 캘리그래피는 8월 23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이용 장애인 봄 나들이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박인향)에서는 지난달 11일 한화아쿠아플라넷에서 이용 장애인 20명과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 회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나들이 행사를 실시했다.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 황동진 회장은 “장애인에겐 힐링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고 제주사회에는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더불어 살기 좋은 제주가 되는 복지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후원 물품 전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감귤농협지회(지회장 오성권)는 지난달 10일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정혜재활원을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감귤농협지회는 정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치매협의체 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센터장 박준혁)는 지난 3월 29일 센터에서 지역사회치매협의체 의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문가 그룹, 관계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치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과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중증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문정신)는 4월부터 12월까지 중증발달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한다. 문화예술교육은 독창적인 작품 활동을 하는 아트플라워와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힐링해피댄스로 구성되며 진행된 작품들로 연말에는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음주환경 탈피 프로그램 구성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성자)는 노숙인 및 노숙관리대상자들이 음주욕구를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력활동으로 해소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체력증진과 심리적 안정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희망가족 유재꽃 나들이(연 1회)'와 '족구 프로그램(4~12월 주 2회)'과 '노래교실(3~12월 주 1회)' 등으로 구성됐다.

내가 그린 세상 프로젝트 진행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시설 중증장애인들이 대상으로 환경보전인식 개선을 위한 '내가 그린(Green) 세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연보전활동과 환경체험활동을 실시했다. 2018년 공동모금회 신청사업인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3월 23일 하귀해안가 일대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과 지난달 2일 한라생태숲 탐방으로 진행됐다.

마음 치유·소통 계기 마련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원화자)는 4월 18~19일 1박2일에 걸쳐 이용자와 함께하는 '2018 제주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제주도내 동쪽일대를 둘러보고 체험하며 투석으로 지친 이용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직원들과 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우나 프로그램 운영



봉아름지역아동센터(시설장 임진희)는 지난달 10일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내 사우나에서 '몸도 청정 마음도 청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후원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사우나를 다녀오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센터 관계자는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축구교실 창단식



비전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명훈)와 제남아동복지센터(원장 이상준), 샘솟는 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명자)는 삼성 꿈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 2일 서귀포시 강창학 경기장 미니 구장에서 축구교실을 창단식을 가졌다. 축구교실은 4월부터 12월까지 총 60회 실시되며 청소년 축구협회 전문 코치의 지도 아래 다양한 축구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시론

### 제4기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부처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표방하고 보장성 강화대책·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 등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오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개정 법률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한편 노인분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인상,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도 국가 기조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및 사업들을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및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복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종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과는 달리 기존의 복지, 보건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여가, 환경, 주거복지 등으로 계획 수립 영역이 확대된다.

이의 일환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공부문은 물론 분야별 전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역주민 욕구조사는 생활여건, 아동·성인돌봄 등 전형적인 복지욕구는 물론 건강·교육·고용·문화·주거복지욕구 등 다

양한 영역에서 실시되며, 개별 가구를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 주민 욕구조사 협조 절실

끝으로 향후 4년 간 우리 지역의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의 기초가 될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지방서기관 **현 홍 직**  
복지청소년과 과장

기고

### 어려운 이웃을 보면, 맞춤형복지계로 알려주세요!



**정 희 재**  
일도2동주민센터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자살한 사건.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3개의 법안이 제·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이와 발맞춰 '맞춤형 복지'는 읍·면·동이 지역복지의 중심이

관이 되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마다 맞춤형복지팀 확대, 설치를 진행 중에 있다.

작년 8월, 일도2동에서는 복지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는 관내 복지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자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로 방문을 하며 상담을 나누다 보니 소득·재산 기준 미달로 좀 더 나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해 계속해서 어려운 생활을 해 오던 어르신도 계셨고, 경제적 지원과 별개로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본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어르신도 계셨다. 그렇다면 국가의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올해 2월부터 3월 두 달 간 숙박업소 거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거주취약계층 가운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우선 관내 30개소의 숙박업소를 일일이 방문하며 운영현황을 조사하였고, 건물 리모델링 중이거나 하루단위로만 손님을 받으며 운영하는 숙박업소를 제외한 9개의 숙박업소 대표와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한 연결체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 분들의 도움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니, 사례관리 대상자 6명, 서비스 연계대상자 4명을 발굴하였고, 이 가운데 2명은 공적급여를 신청하여 제도권 내에서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을 발굴해내는 과정에는 맞춤형복지팀이 있기도 했지만, 숙박업소 대표, 즉 우리 지역주민들의 도움이 가장 컸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고 읍면동 맞춤형복지계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있어 가장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발굴 경로가 됨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한다.

칼럼

### 봄의 그늘

이 시대의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설익은 과일처럼 풋풋함이 묻어나는 생기 어린 얼굴, 거침없이 끼를 발산하며 럭비공처럼 어디로 떨어지지 모르는 신세대.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간직한 미완의 세대로 개성이 강한 미래의 주역이다.

갈색의 스산한 가을을 성년의 계절이라고 한다면, 연둣빛 화사한 봄날은 청소년의 계절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화사한 봄에도 그늘진 곳은 있고 비바람은 몰아친다. 가끔씩 번덕스러운 봄 날씨처럼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이유 없는 반항과 흔들림이 있다. 번뇌 없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이 있을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우리 가정과 사회가 맞춰주지 못한다. 인성교육의 부족, 경쟁과 일등만 요구하는 교육, 폭력과 가정해체,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성세대의 범죄는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의 일탈을 부추긴다.

나도 청소년 시절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좌절감에 방황의 길을 걸었다.

#### 기성세대 범죄 청소년 일탈 부추겨

짧은 기간이지만 군대를 경험하고 노동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나의 길은 공직자라고 굳게 다짐하며 삼년여의 방황의 시간을 끝냈다. 공무원채용수험준비에 몰두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합격해 공직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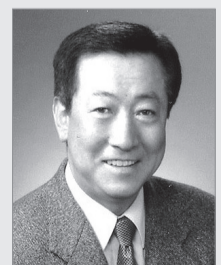
그늘진 곳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선도를 위해 행정기관, 경찰, 관련단체 등이 노력하고 있으나, 범죄연령은 낮아지고 수법은 더욱 잔혹해지고 있다.

소년법이 제정되어 60여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상황은 농경시대가 정보화시대로 변모했다. 달라진 시대환경 속에 지금의 청소년들은 경제발전과 식생활개선으로 매우 조숙해졌다. 소년법에 규정된 나이 만 14세, 반사회적 잔혹범죄에 대한 최대형량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법무부와 경찰의 유기적 협조관계도 전반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앞서 선행되어야 할 일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의 역할분담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관리하고 선도할 전담인력과 가출청소년쉼터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해야 한다. 가정,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청소년선도는 어느 특정기관단체의 일이 아니라 기성세대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깊은 관심을 가지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터이다.



**문 익 순**  
전 제주4·3사업소장

장애인의날 기념 도내 행사소식

#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마련

## 도장애인총연합회,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부형중)는 지난달 20일 조천체육관에서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기념식은 장애인 및 가족, 기관단체장, 장애 복지관련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2,000여 명이 함께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고 화합하는 축제로 펼쳐졌다.

기념식은 식전 축하공연에 이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지부 양예홍 회장의 장애인인권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복지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와 격려사, 축하 순으로 진행됐다.

복지유공자 표창에서 지적장애 1급 가수 차세나(36·여)씨가 제주도 장애인 대상상을 받았다. 차 씨는 지적장애를 극복,

2010년 1집 앨범과 2015년 2집 앨범을 낸 가수로서 경로당 무료 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장애인 아버지 대상은 뇌병변장애 2급 자녀가 수영선수로 설 때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준 공로로 박미이(51·여)씨가 수상했다.

장애인 도우미 대상에는 제주도 장애인지원협의회에 수여됐다. 지체장애 2급 배태환(59)씨와 최영렬(4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 원장은 장애인복지 특별상을 받았다.

또한 이날 부대행사로 장애인생산물 홍보·판매, 휠체어·보호장구 수리 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재활상담·가족지원 상담 등도 함께 운영됐다.

# 장애인 한마음축제 '성황'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장 애인단체연합회(대표 강유민)는 지난달 17일 올림픽 기념국민생활체육관에서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 17회 서귀포시 장애인 한마음축제를 개최했다.

축제는 서홍동 민속사물놀이패의 공연을 시작으로,

박경선 소리마당, 난타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이어 1부 기념식과 2부 노래자랑,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로 꾸며졌다.

특히 장애와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서귀포시장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 420장애인문화제 성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회장 박영재),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강인철),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고현수)은 지난달 18일 벤처마루 앞마당에서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20장애인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제는 비보이팀 리부트크루의 공연과 피아

합창단의 노래공연 등 문화 예술 공연과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요구안을 발표하는 5분 발언대가 진행됐다.

이날 발언대에서는 저상 버스 확충,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운영을 요구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탈시설 지원 체계를 마련, 장애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 '장애인의 날' 대상 수상자 등 인터뷰

제 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번 장애인의 날 장한장애인 대상상을 받은 가수 차세나씨와 어머니 이금희씨, 장애를 딛고 가수로서의 첫 도전을 시작한 김원필씨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 장애인의 날 수상자



이금희·차세나

“노래 좋아요! 좋아요” 지적장애 1급, 4세 연령을 갖고 있어 엄마가 없으면 사

## “노래로 언어능력도 커지고 건강해 졌어요”

람들과 소통이 힘들지만 '노래'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가수 차세나 씨를 만났다.

어린시절 몸이 좋지 않았던 차씨에게 웃음을 찾아준 것은 바로 '노래'였다.

차 씨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세나가 많이 힘들어 했지만 카세트로 노래를 틀어주거나 노래를 불러주면 편안해 하고 표정도 밝아졌다”며 “또 세나가 노래를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능력도 커지고 건강해졌다”고 말했다.

차 씨가 음악적인 재능을

펼칠 수 있던 것은 주변의 도움이 컸다. 딸이 자유롭게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어머니 이 씨와 작곡가 윤세진 씨가 레슨을 도와주면서 2010년 첫 번째 앨범 '세나의 꿈'이 2015년 두 번째 앨범 '나는 꿈을 꾸

어요'를 발매할 수 있었다. 차 씨는 음악적인 능력을 활용해 2013년 '복지리 연예인봉사단' 제주지회 회원으로 가입,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씨는 “세나의 무대를 보면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장애인이나 장애인 부모들이 세나의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고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원필

누구에게나 생애 첫 도전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이미 제주지역 곳곳을 돌며 다양

## “사람들에게 편안한 음악 전하고 싶어요”

한 공연을 선보였지만 올해 생애 첫 단독콘서트와 첫 번째 앨범 '썸데이'를 발매한 장애인 가수 김원필 씨에게도 그렇다.

생후 7개월에 소아마비 1급 장애인진단을 받은 그는 장애라는 편견에 앞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 씨는 “어린시절부터 음악과 악기에 관심이 많았다”며 “음악을 듣다보면 마음속의 응어리가 사라진다. 음악이 현재 내 모습으로 끌고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휴식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앨범 '썸데이'를 제작했다.

작곡부터 편곡, 연주까지 직접 홈레코딩으로 제작된 이번 앨범에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곡으로 가득 채워졌다.

김 씨는 “13개의 음계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언 언젠가 신기하다”라며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편안한 음악을 선물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음악을 하는 데 장애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앞으로도 앨범들을 발매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시설탐방

(96)비전지역아동센터

# “아이들 꿈 키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 2004년 설립...넓은 공간 쾌적한 환경 제공

“아이들 누구나 자유롭게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비전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명훈)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쾌적한 환경이다.

지난 2004년 아이들의 꿈을 찾아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문을 연 비전지역아동센터에는 현재 35명이 어린이들이 각자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박 센터장은 “방과 후나 방학 때 지낼 공간이 없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비전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설어 하기도 했지만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기 시작하니 아이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와 주었다”고 말했다.

비전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의 자존감과 자신감 향상, 자기 주도적 학습 의지 강화, 아동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비전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보호·교육·복지·문화·지역사회 연계·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 프로그램은 아이들 스스로 의사소통 및 규칙을 정하는 아동 자치회의, 교통·실종·약물 오남용

###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역 연계 프로그램 ‘톡톡’ 방과후 보금자리... 자신감 향상·유대감 형성 도움

등 5대 의무 교육,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아동인권 교육, 위생점검을 위한 개별생활지도 및 위생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또 교육 프로그램은 원어민 영어 교실과 학습 및 숙제지도, 독서교실, 생활과학교실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 프로그램은 아이들과의 상담과 함께 보호자 회의·교육, 아동학대 교육, 진로상담, 집단미술치료 등으로 운영되며, 문화 프로그램은 캠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행

복나눔축제 참여, 박물관, 전시관, 경기장, 영화관, 미술관 등 지역을 탐방하는 현장문화 체험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는 아동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을 키우는 우쿨렐레 교실과 신체적 능

력과 창의력·집중력을 키워주는 방송댄스 교실, 삼성공장학재단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축구교실 등으로 구성됐다.

비전지역아동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자신감을 키우고 서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사춘기의 아이들이 있다 보니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도 단어 선택 등에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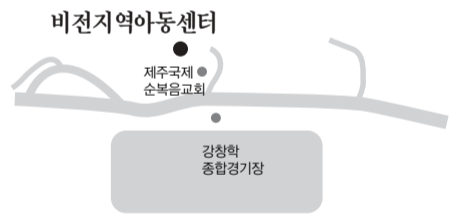
박 센터장은 “지금은 센터에서

나간 아이들이 고민이 생길 때마다 연락해 온다. 처음에는 행동이 거칠고 표현이 서툴렀던 아이들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다”며 “센터에서 지내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삶의 일부분일 뿐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진정 하고 싶은 꿈을 찾아 실현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좋아서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한 만큼 아이들이 더 멀리, 더 높게 세상을 날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다”며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승지 기자>



▲ 비전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자존감과 자신감 향상,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아이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 법률홍닥터·52

### 내용증명이란?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면서도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법률 상식들이 있는데 그 중 '내용증명'에 대해 살펴보고자.

법적인 조치를 개시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내용증명이란 법적인 절차일까?

#### ◆ 내용증명은 우편서비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에 도움을 주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절차는 아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이다.

당자자간에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특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이고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도 응답의 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내용증명의 예외 이용방법

흔히 사용되는 예를 들면,

본인 소유의 집을 2년간 세입자에게 빌려주었다가 계약기간이 거의 끝날 때 즈음(만료 1개월 이전) 집 주인은 이제 본인이 그 집에 살고자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 때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전화로도 통지할 수 있지만 확실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세입자인 임차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서 훗날 생길지 모르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

를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원본을 포함하여 3부를 준비하여야 한다.

원본은 수신인에게 등기로 보내게 되고 1부는 발신인 보관용으로 돌려받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내용증명은 문서 매수에 따라 요금이 증가하게 되는데 내용증명 수수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 등기우편 요금보다 약간 비싸다.

이 기사는 법무부 발간 '2017 법률홍닥터 우수사례집'에 실린 실제 사례입니다.